■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7-61.
http://doi.org/10.17948/kcs.2023..98.37

【 특집 :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 】

현존 김려・김선 형제 저작의 문헌학적 재검토*

김영진(金榮鎭)**

목 차

1. 서론
2. 김려 시문의 현존 이본
3. 김선 시문의 집일과 『楚館漫筆』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金鑢・金鏞 형제의 저작 중 현존하는 필사본 이본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울러 신자료를 소개하였다. 김려는 만년인 1818년에서 1821년 사이 자신의 시문과 지인 및 인척의 시문을 수합하여 『薄庭叢書』 34권 17책을 편찬하였다. 김려의 손자 김겸수는 이 총서 내의 김려의 시문만을 뽑고 또 육촌 김기수의 자료 협조를 얻어 보유를 첨부한 12권 6책의 목활자본 『薄庭遺藁』를 1882년에 간행하였다. 『담정총서』전질은 유일의 필사본이지만 『牛海異魚譜』및 김려의 傳은 轉寫本들이 현존하고 있다. 연세대에 소장된 『우해이어보』‘서여본’은 표제가 ‘玉曇書種’ 내제는 ‘담자외서’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우해이어보』‘귀중본’은 표제가 ‘담정총서’, 내제는 역시 ‘담자외서’로 되어 있다. 이 ‘귀중본’에는 『우해이어보』 외에 김선・김선신・조면호 등의 시문이 필사되어 있는 바, 조면호가 김선의 제자였다는 점에서 조면호 또는 그 주변인이 필사한 책으로 보인다. 김려의 전 작품들은 『續齊諧志』(필사본 1책, 일본 천리도서관), 『香半館藏書』(필사본 1책, 규장각) 등에도 실려있는 데, 일부 글자의 출입이 있다. 김려의 『思牖樂府』는 『담정총서』본과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에는 300수, 『담옹유고』에는 295수, 『담정유고』 목활자본에는 290수만 실려 있는 차이가 있다. 성균관대 소장

* 이 논문은 제3회 국립한국문학관 정기학술대회 “담정 김려 문학과 그의 시대”(2022년 10월 22일, 은평문화원)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 한문학과 부교수.

『담정유고』에는 「月巖權公行錄」 등 유배지 진해에서 지은 글 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8편 중 「慕先齋上樑文」과 「慕先齋記」만 목활자본 『담정유고』에 보인다. 김선의 경우 시문의 유실이 김려만큼이나 많은데, 필자는 그의 逸文으로 김선민의 『관연록』에 붙인 題後와 유배지인 초산에서 쓴 『초관만필』을 소개하였다. 김선의 경우 『담정총서』에 수록된 小集 이외의 글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蒐佚 작업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향후 김려·김선 형제와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의 정도, 영향관계가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 磁場 안에 李鈺, 金善臣, 金照, 趙冕鎬, 金綺秀 등 중요한 문인들이 포진해있는데, 이들은 19세기 문학사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줄 하나의 판이 될 것이다.

주제어: 김려, 담정총서, 담정유고, 우해이어보, 사유악부, 김선, 초관만필.

1. 서론

김려는 1766년 노론 시파 쪽 인물인 金載七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 15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詩文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1797년에 문체 문제와 벽파의 모함에 연루된 飛語事件으로 함경도 富寧에 유배되었다가 1801년 신유사옥으로 재조사를 받고 다시 경상도 鎭海로 이배되었다. 1806년 10월에 풀려날 때까지 전후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이 와중에 고향집 및 서울집에 있던 자료들이 대거 산일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령 유배지에서의 필화 사건으로 그곳에서 지은 시문 및 가지고 간 시문들이 화를 입었다.

「題思牖樂府卷後」에 의하면 謫居 이후의 저술로 「歸玄居士稿」, 「烟窗隨筆」, 「蓮姬言行錄」, 「刹那祕史」, 「鍼氈錄」, 「寧山神詞」, 「富春風俗緊」, 「梨下記聞」, 「千愁萬恨書」, 「樺宕羨語」, 「樫砦滑耀記」, 「寧城忠烈傳」, 「坎窞續記」, 「雪窖零言」 등 10여 종이 있었으나, 체포되어 형신을 받거나 혹은 嶺南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산일되어 『思牖樂府』 2권과 『坎窞日記』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저술은 『薄庭叢書』, 『倉可樓外史』, 『寒皐觀外史』 등이 있다.

---

1) 김려의 서울 집은 가회방의 맹원 인근에 있었고 선산은 조부 金熹의 경우 振威 余方面 毛山에, 부친 金載七의 경우 公州 新上面 杜芝洞에 위치하였다. 김려는 사후에 부친 묘역에 묻혔는데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예산군 신양면 연리 산27-1이다(『延安金氏懿愍公派譜』, 규장각 소장, 3권 3책, 1901). 참고로 아우 김선의 묘는 牙山 二西面 防築里에 있었는데 1978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로 이장하였다(연안김씨인터넷족보).

그런데 문제는 김려가 젊은 날에도 이미 자신의 저작을 『창가루외사』라고 제명한 적도 있으며[2], 김려 스스로 붙인 것인지 다른 문인이 붙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김려의 시문만 뽑은 것을 두고도 『담정총서』라고 제명한 것도 있어 혼란이 있다. 또 김려가 만년에 본인 저작과 벗들의 저작을 한 데 모아 『담정총서』를 편찬했는데, 김려의 이와 유사한 편찬 작업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그 사례가 있다. 즉 1806년 해배 직후 만들었던 자기 형제와 벗 죽장 이우신, 청산 김선신의 시문 모음인 『周旋集』(6권)이 그것이다. 『주선집』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목활자본 『담정유고』 권10에 실린 「題竹莊散稿卷後」에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 내가 어렸을 때 李益之(익지는 이우신의 자) 선생과 함께 공부하였는데 선생의 시문 草本을 片言隻字라도 모두 내 상자에 보관하였었다. 정사년(1797) 내가 飛語獄에 연좌되어 북쪽으로 寧州(부령)로 유배되고 신유년(1801) 의금부에 체포되어 곧바로 牛海(진해)로 유배되었는데 가장하고 있던 서책도 모두 수색압수당하여 선생의 시문 및 내 원고들이 산실되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다. 문장의 액운 또한 참혹하구나. 병인년(1806) 은혜를 입어 해배되어 돌아와 드디어 벗들의 문자를 수습하여 6권으로 만들고 『周旋集』이라 이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 [3]

故 이겸로 소장 김려 관련자료는 『담정총서』(필사본 34권 17책), 『담옹유고』(필사본 7책), 『초관만필』(김선 저, 필사본 1책), 『無處不花閣集』(김기수 저, 필사본 1책)이 있다. 이 중 『초관만필』을 제외한 3종은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무처불화각집』은 1974년 『산기문고목록』에는 실려있지 않다.[4] 또, 성균관대 존경각에는 10여 년 전에 『담정시집』(필사본 1책), 『사유악부』(필사본 1책), 『감담일기』(필사본 1책), 『담정유고』(필사본 1책) 등이 입수되었는데 모두 담정의 수택본이거나 후손 가장본임이 분명하다.[5] 다만 故 이겸로

---

2) 목활자본 『담정유고』 『사유악부』 제92수의 "倉可外史閏觀志, 洛秀書之蠅頭字"의 주석에 "余所撰倉可庫外史, 金侍郎所著閏人觀外史, 族孫洛秀書之."라고 하였다.

3) 金鑢, 『薝庭遺藁』, 「題竹莊散稿卷後」, "余自幼時, 與李益之先生同遊學. 先生詩文草本, 片言隻字, 皆藏鄙篋. 丁巳, 余坐飛語獄, 北竄寧州. 辛酉, 被逮錦衣, 旋配牛海. 家藏書卷, 並入搜探, 先生詩文及余稿散亡, 無略存者. 文章厄運, 亦慘矣哉. 丙寅, 余蒙恩解歸. 遂收拾知舊文字爲六卷. 名曰周旋集, 又不知在於何處. (…)"

4) 이우성의 『한국고전의 재발견』 「담정총서 해제」에는 『무처불화각집』에 대한 언급이 있다.

소장본과 존경각 소장본이 김려 후손가에서 나온 것인지 동생 김선 후손가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김선의 『초관만필』에는 "海皐"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는데 이는 김려가 진해 유배기에 썼던 호이다.[6]

본고의 목표는 최근 발굴된 김려·김선 자료의 특징과 의미를 소개하고, 또 연세대에 소장된 『담정총서』(필사본 1책)와 『옥담서종』(필사본 1책)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혀보는 것이다. 끝으로 김려의 서사 작품의 유전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김려 시문의 현존 이본

『薄翁遺藁』 10권 7책은 산기문고의 서목에 언급되었지만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7] 최근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이 책을 입수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목활자본 『담정유고』와 이를 비교해보면 각 권의 제목이 다르지는 않지만 『사유악부』의 경우 수록한 시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거나 『단량패사』의 경우 작품이 추가되는 등의 차이가 보인다.

[표 1] 필사본 『담옹유고』와 목활자본 『담정유고』비교

	담옹유고 (필사본)	담정유고 (목활자본)
1	귀현관시초(권1), 간성춘예록(권2)	귀현관시초(권1), 간성춘예록(권2)
2	의당별고(권3), 만선와잉고(권4)	의당별고(권3), 만선와잉고(권4)
3	사유악부(권5)	사유악부(권5, 권6)
4	감담일기(권6)	감담일기(권7), 우해이어보(권8)
5	우해이어보(권7)	단량패사(권9), 총서제후(권10), 창가루외사제후·한고관외사제후(권11)
6	단량패사(권8), 총서제후(권9)	보유집(권12)
7	외사제후(권10)	

5) 김려의 위 4종 외에도 그 장남 金夔淵의 『從宦日記』, 종손 金綺秀의 『史草』도 같은 때에 입수되었다.
6) 추정컨대 평안도 초산에 유배되어 있던 김선이 자신의 일기를 써서 진해에 유배되어 있던 형 김려에게 이 자료를 보냈거나 아니면 해배 이후에 서로 유배기의 시문을 교환하여 열람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장에 유배되어 있던 심노숭과 서울에 있던 동생 심노암이 서로의 시문을 교환하여 형제의 우애와 서로의 소식을 통하던 사례가 있다.
7) 이가원 『이조한문소설선』(民衆書館, 1961)에는 『담옹유고』를 인용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산기문고의 이 자료를 열람 및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려의 가계를 보았을 때, 그의 從孫 김기수가 「薄庭遺藁 跋」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서원 김선이 목활자본 『담정유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7책으로 김려의 원고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힌 점에서 그 해당 자료라고 보인다.

> 선생께서 작고하시고, 할아버지 犀園(김선의 호) 부군은 상자에 간직하였던 것만을 종이에 올려 일곱 책으로 만드셨다. 대개 가볍게 유희하는 작품들이어서 소명태자 『문선』의 체제를 본뜨고자 하여도 그럴 수 없었다. 이제 선생의 적손인 고령현감 김겸수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것을 간행하려고 하였으니, 초고를 좇아서 원굉도의 『중랑산집』을 흉내내었을 뿐이었다. 불초가 다시 약간의 시문을 수집하여 『보유집』을 만들고 여기에 붙인다. 모두 열두 권이다.[8]

1) 연세대 소장 『玉曇書種』과 『薄庭叢書』



[그림 1] 연세대 소장 『玉曇書種』(청구기호:고서(서여)1730)

연세대 소장 김려 관련서 2종 가운데 『옥담서종』(필사본1책, 청구기호: 고서(서여)1730)은 서여 민영규 선생 기증 장서인데 이 책이 담긴 봉투 우측 상단에 검정 볼펜으로 "華山書林"이라 적혀있어 화산 이성의에게 입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제는 "玉曇書種"이며 표제 아래 작은 글씨로 "薄子外書"[9]와

8) 金綺秀, 「薄庭遺藁 跋」, 『薄庭遺藁』 卷12. "先生沒. 王考犀園府君, 只以巾衍所藏, 登諸紙爲七策. 槩多率爾游戲之作. 欲仿昭明選體而不可得. 今先生嗣孫高靈監, 不謀衆而刊行之, 從草本, 只擬中郎散集. 不肖又蒐輯若干詩文, 爲補遺集而附之, 凡十二卷."

9) 사유악부에 김려는 스스로를 '薄園子'라고 쓴 용례가 보인다(前冬來訪薄園子, 遇逢車老爭義理).

“牛海異魚譜”라 쓰여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데 김려 스스로 옥담서종, 담자 외서 등의 명명을 하였다는 점, 특히 이 “서종”이라는 서명은 泠齋 柳得恭에서 처음 시작되어 蘭室 成海應, 鶴菴 朴珪壽, 五洲 李圭景 등 조선에서는 극히 적은 인물들만이 사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의 첫 면에는 원 소장인이 도삭된 상태이다. 내제는 『우해이어보』로 글씨가 해정하다.

연세대에는 또 『담정총서』(필사본 1책, 청구기호: 고서(귀) 639김려 우)도 소장되어 있다. 이 책 역시 제일 앞부분 절반은 『우해이어보』이고, 뒤쪽 절반은 시와 문이 뒤섞여 있는데 이 작품들이 중요하다. 수록된 시문은 대략 53수인데 김려, 김선, 김선신, 이안중, 조면호 등의 작품이 섞여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면호인데[10] 조면호는 김선에게 직접 배운 문하생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옥수 조면호 또는 그의 지인이나 문인이 필사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필사본 1책 『담정유고』



[그림 2] 연세대 소장 『薄庭叢書』(청구기호: 고서(귀) 639김려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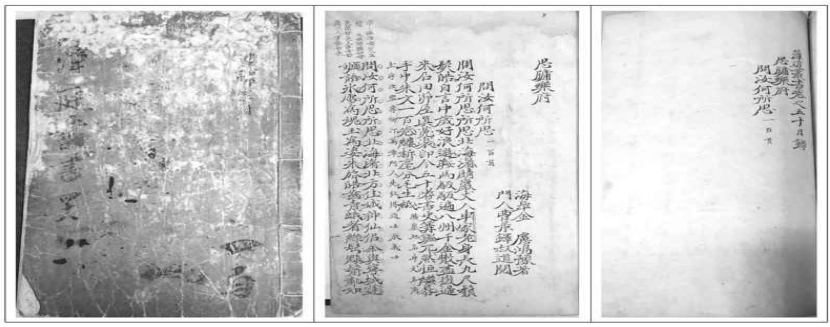
따라서 담자외서의 담자는 스스로가 붙인 이름.

10) 옥수의 작품은 특히 詞가 많이 수록되었는데 그 외에도 옥수의 유명한 감시절구 내의 灣州使者白羊裘, 藉藉關西四十州. 鑑月銓星歸玉貌, 紆餘曾得廟堂籌. (趙北海尙書鍾永灣州使詩曰, 灣州使者白羊裘, 背著邊書鞭紫騮. 直入金門奏明主, 狼烟不駕鶻山頭.)와 같은 작품도 수록되어 주목된다. 청나라에 들어가는 북해 조종영을 전송하는 시는 김려도 5수를 지은 바 있는데 이 작품은 목활자본 『담정유고』에는 수록되지 않고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감담일기』의 이면에 필사되어 있다.



[그림 3] 존경각 소장『薄庭詩集』(청구기호: D03B-4364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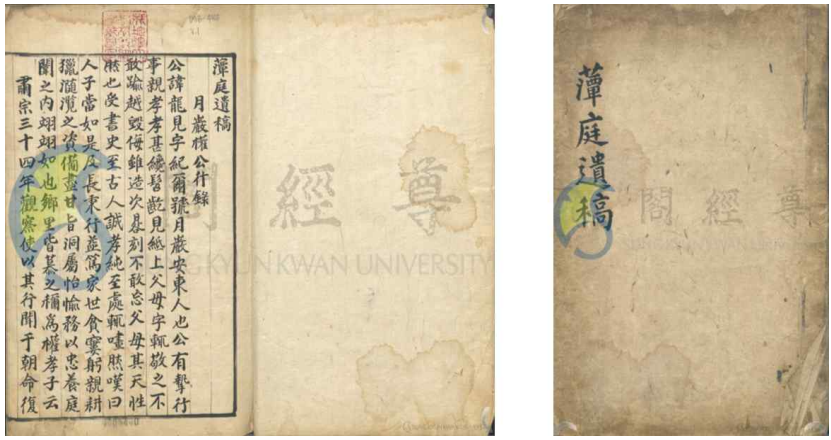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김려 관련 자료는『담정시집』(1책),『사유악부』(1책),『감담일기』(1책),『담정유고』(1책) 필사본 4종이 있다.『담정시집』은『의당별고』 1책이다.『사유악부』는 34권본『담정총서』와 존경각본『사유악부』에는 300수가 실려 있고,『담옹유고』에는 295수 그리고 목활자본에는 290수가 실려있다.『감담일기』는『담정총서』(34권 17책본)에 실린『감담일기』와 글자 출입이 있어 향후 면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또『감담일기』의 이면 십여 장에는 김려 친필로 추정되는 시 작품 몇 수가 필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의『귀현관시초』에 수록된 것이 여러 편 있다. 대체로 34권본『담정총서』와 그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며 목활자본『담정유고』는 해당 제목을 일부 바꾸어 적어두었다.



[그림 4] 존경각 소장『思牖樂府』(청구기호: D03B-4363 v.1)



[그림 5] 존경각 소장『坎窩日記』(청구기호: D03B-4362 v.1)



[그림 6] 존경각 소장『潭庭遺藁』(청구기호: D03B-4365 v.1)

이제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담정유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은 앞서의 존경각 소장 3종에 비해 필사 시기가 늦다. 그러나 이 책 역시 후손 가장본임은 분명하다.[11] 여기에 실린 김려의 작품들은 처음 발굴되는 것이 많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필사본 1책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 작품은 총 8편으로 다음과 같다.

11) 이 책에는 "김려가 쓰다"라는 부분에서 鑢字를 생략하거나「모선재기」에는 鑢字 위에 부전지를 붙임으로써 공경의 뜻을 표하였으므로 직계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책임을 보여준다.

①「月巖權公行錄」, ②「慕先齋上樑文」, ③「慕先齋記」, ④「仲春宿權氏家塾贈而述兄弟二十韻」, ⑤「與而述書」, ⑥「答而準書」, ⑦「三家淨選序」, ⑧「檜溪書院奉安文」

이 중「모선재상량문」과「모선재기」만 목활자본『담정유고』보유편에 실려있을 뿐, 나머지 작품은 실리지 않아 일단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전부 김려가 진해로 유배지를 옮겼을 때 그곳에서 지은 것이다. 다만 마지막 작품인「회계서원봉안문」은 1841년에 건립된 진해의 회계서원에 관련된 작품으로 정4품 응교직을 맡은 사람이 썼다고 하여 김려의 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작품부터 여섯 번째 작품까지는 모두 진해에서 세거한 안동권씨 집안과 관련된 글인데, 김려가 진해 유배지에서 權邦烈(1773-1837), 權宜烈(1778-1839) 형제와 절친하게 지냈는 바, 첫 작품인「月巖權公行錄」은 권방렬의 오대조 月巖 權龍見(1632-1714)에 대한 행록이다. 권용현은 효행으로 이름이 나서 숙종 연간에 경상도관찰사의 힘을 입어 진해의 읍지에 실렸다. 그의 효행에 대한 서술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鎭海縣邑誌』(청구기호: 古2759-31)[12] 효자 조항의 설명과 전체적인 내용은 같으며 부친을 위해 여름에 제철이 아닌 황어를 구해드린 것, 부친의 임종을 앞두고 손가락을 베어서 피로 봉양한 것, 돌아가신 뒤에 삼년상을 더하여 치른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권용현의 선대와 후손에 대한 서술, 그리고 김려 자신이 그 후손에게 행록을 지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 등을 기술하였다.

다만 이 글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권용현의 사적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글과 2023년 안동권씨 인터넷족보에서는 권용현의 효행이 숙종 34년(1708)에 읍지에 실렸다고 하였으나 위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진해현읍지』에서는 숙종 36년(1710)에 실렸다고 하였다. 이는 1708년부터 1710년 사이에 경상도관찰사를 맡은 인물로 남인 洪萬朝

12)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고종 연간에 인쇄된 목활자본『鎭海縣誌』(청구기호: 한古朝62-122)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필사본『진해현읍지』와 달리 권용현의 효행 및 그 자손의 진사 기록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반면 목활자본『진해현지』는 司馬 條에 총 4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유배객인 김려가 등재되어 있는 것은 특이하다. 나머지 셋인 郭龍鎭, 郭龍鎬, 朴受一 중 곽용진・곽용호 형제는 진해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되나 박수일은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1645-1725), 소론 李師尙(1650-1725), 노론 兪命弘(1655-1729)이 있기에 이 가운데 상부에 누가 표창 건의를 올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6년상을 치뤘다는 일화를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용현의 모친이 그 부친보다 늦게 졸했다고 서술하였지만 족보에 의하면 모친상은 1656년, 부친상은 1658년으로 적혀있어서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慕先齋上樑文」과 세 번째 「慕先齋記」에서 중심이 되는 모선재는 글을 외는 장소이면서 권용현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주인인 慕軒 權正來(1730-1809)는 권방렬의 조부이며 1806년 1월에 모선재를 상량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에 김려가 기문을 써주어 그 집안의 효성스러움과 가풍을 드러내었다. 상량문의 경우 사소한 글자 차이가 있고 기문은 마지막의 연월일시를 적을 때 금상 밑에 작은 주석으로 순조라고 적어두어서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바꾼 1857년 이후에 이 책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작품 「仲春宿權氏家塾贈而述兄弟二十韻」은 평성 元韻으로 지은 오언시이다. 김려가 효자촌을 찾아가 그 효성스러움을 말하면서 권씨 가문의 돈독함을 보며 자신이 겪고 있는 유배의 고통을 위로하고 있다. 시는 다음과 같다.

편한 걸음으로 모래섬을 따라서
나지막이 읊조리며 바다 어귀를 건너네
온화한 바람은 나무의 기운과 교차하고
맑은 비 개고 꽃의 혼이 살아나네
은자의 명예 결핍됨 부끄러운데
외람되이 효자의 마을 찾아갔네
높은 산소는 언덕 형세 길하고
남겨진 글방은 지형이 높구나
슬픈 골짝엔 소나무 삼나무 엄연하고
감아도는 내엔 마름풀이 무성하네
푸른 빛 용마루는 저녁 달에 이어지고
담황색 난간은 아침 햇살을 이끄는구나
현악 소리는 당의 교악이요
시와 서는 노나라의 돈후함이라
왕상의 물고기에 교화 입은 권씨 집성촌

맹종처럼 잘 봉양하는 손자들
봄 나무는 언제나 그 뿌리가 있어야 하고
단 샘물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네
여러 어진 이들의 풍격이 준엄하고
그 조상의 모범이 남아있으니
빈 골짜기의 난초 향은 빼어나고
남전 땅의 옥은 절로 온화하네
오 년을 북방에서 얽매였고
삼 년을 또 다시 남방에 유배되니
혜초 꿰어 엮어 부질없이 도리에 부끄러워하고
모래를 품고 아직 굴원을 조문하지 못하였네
뜬 구름이 밝은 해를 흔들고
찬 빗물이 황혼에 몰아치니
바다 바깥은 사람 사는 곳이 없고
하늘 끝은 모두 유배지라네
주인옹이 진실로 의기가 있으니
나그네가 감히 번뇌하고 원망하리오
다행히 뇌의와 진중의 우정을 힘입고
관중과 포숙의 은혜 지나치게 받았네
새벽을 연이어 대나무 자리에 머무르고
날이 다하도록 부들 자리가 깨끗하네
좋아하는 사람과 필묵을 함께하니
즐거움이 밥상까지 이르네
남은 생애는 오히려 쾌적하리니
진중한 뜻에 다시 말할 것이 없네[13]

다섯 번째 「與而述書」는 권방렬(字는 而述)에게 보낸 편지로 김려는 진해로 이배된 그 이듬해부터 그와 교제를 시작하여 해배될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13) 坦步遵沙嶼, 微吟度海亹. 惠風交樹氣, 淑雨霽花魂. 愧乏幽人譽, 叨尋孝子村.
高塋岡勢吉, 遺塾地形尊. 哀壑松杉儼, 廻溪荇藻繁. 翠甍延夕月, 綃檻引朝暾.
琴瑟唐郊樂, 詩書魯國敦. 王魚涵有族, 孟竹養生孫. 春木終須本, 醴泉可泝源.
羣賢風格峻, 迺祖典型存. 空谷蘭應秀, 藍田玉自温. 五年為北累, 三歲又南轅.
紉蕙空慚誼, 懷沙未吊原. 浮雲搖白日, 寒雨颯黃昏. 海外無人界, 天涯盡鬼門.
主翁真意氣, 游子敢煩寃. 幸賴雷陳契, 偏蒙管鮑恩. 連霄留竹簟, 鎭日淨蒲墩.
惠好同翰墨, 歡娛及飯飧. 餘生猶快適, 珍重更無言.

사이였다. 진해에서 해배되어 상경한 뒤에도 소식을 통하였는데 그가 1809년 조부상에 이어 1810년 모친상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의 편지이다. 김려는 前 현감의 집으로부터 전해준 권방렬의 동생 권의열의 편지를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삼청동으로 이사했던 1811년 봄 즈음에 이 편지에 답장하였다.

여섯 번째 「答而準書」는 권의열(字는 而準)에게 답한 편지이다. 田園 柳道獻(1835-1909)은 「容膝窩權公墓碣銘 幷序」에서 김려가 권의열을 두고 "자신의 벗이 아닌 스승(藫庭金公鑪嘗禮敬之曰, 君吾之師, 非鑪之友.)"이라 말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권의열의 조카 龍耳窩 權埰(1800-1873)의 「祭仲父容膝窩府君文 己亥」에 김려가 권의열을 추켜올렸다는 말(藫庭金上舍每嘗推詡之)의 일화인 듯하다. 김려는 이 편지에서 권의열의 조카, 즉 권뢰의 시를 논평하고 있다. 김려는 권뢰의 시를 두고 권의열과 흡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쇄하고 무기력하다고 평하였다. 이에 대해 부연하여 영쇄하다는 것은 촉급하고 날카로움이며, 무기력하다는 것은 이치가 순하고 富贍함은 그래도 할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과문에 크게 나쁜 증세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김려의 과거 시험 문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또 『杜甫全集』의 오언시를 읽으라고 한 데서 그의 시적 지향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三家淨選序」[14]는 김려가 젊은 날부터 모곤의 『唐宋八大家文鈔』를 애독하였다는 말로 시작한다. 김려는 진해 유배지에서도 한유, 유종원, 구양수 셋의 작품을 뽑아 읽고 있었다. 이듬해부터 이 고을 선비 한태유와 사귀게 되었는데 한태유는 지역의 장서가 金氏 로부터 종종 책을 빌리곤 하였다. 그런데 김씨가 돌연 돌연 책을 빌려주지 않자 한태유는 이에 분개하여

14) 김려, 『담정유고』, 「三家淨選序」. 余平生喜看茅順夫所選八家文抄, 甚至於寢食手不釋. 朋友目之以八家佞幸, 然不屑也. 但恨其所選稍廣, 讀者嫌其汗漫. 余思於暇日, 與二三諸益汰其冗繁, 別為一冊, 以資觀覽. 然時余以韋布之列, 猥蒙聖主知獎, 屢侍金華長在頖齋, 有意而未果也. 丁巳余因飛語編配慶源, 未幾量移富寧. 辛酉因臺 啓被逮獄, 竟又配鎭海. 海於嶺右最僻陋, 無文字俗, 蚩貿旣至之. 翌年與邑之士韓生泰維甚善. 泰維自佳士, 有志未能樹立, 見余亦甚喜自得也. 語次遂及此事. 已而聞倉浦富民金姓, 家頗蓄書籍, 輒往借焉, 略加抄録, 使泰維淨寫. 未幾, 金姓子忽悔不肯假, 泰維甚恨之. 余曉之曰, "是不足恨也. 吾請為君下一轉語, 可乎? 昔三爹淵金文康公家甚貧, 然必買書冊以借人讀為已任. 借讀者勤攻其業, 手澤汙衣板本生毛, 則輒喜殆不能寐. 或有還完者裝潢依舊, 輒怒曰子胡為借書不讀. 故金公家書籍無所見存者. 然而今其子孫雄詞垣而主文盟者, 若丘山焉, 權清隱侍郞, 李陶山平章, 並家儲萬卷而未嘗借人. 今其子孫果如何耶? 夫士大夫識道理者尚如此, 於金姓何恨焉. 譬如守錢之虜, 豈能有朝夕慮耶. 但君勿恨於此, 愈讀書不已, 則從今以往, 或有借書於君者矣. 當是時也, 愼勿如金姓者, 可矣." 遂編所抄韓柳歐三家各體分類瀞寫, 釐為十四卷, 目曰 『三家淨選』. 若夫曾王三蘇之文, 及五代史抄, 當待後日續錄. 願韓君無恨焉. 嘉慶乙丑仲夏旣望後一日, 藫園纍人金 序. 지면 관계상 번역은 생략한다.

김려를 찾아와 하소연 하였다. 김려는 한태유를 위로하며 학문을 권면하였다. 이 글에는 당송 팔가를 중심으로 한 고문에 대한 김려의 인식의 일단도 보이고 있어 의미가 있는 글이다.

이 일곱 편 중에 김기수가 수집하여 보유편으로 만든 것에 「모선재상량문」과 「모선재기」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배제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방에서 지역 양반의 윗대 선조의 행록을 응수문자로써 써준 것, 그리고 이들 형제에게 보낸 편지도 예사의 안부 내용 그 이상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배제되었다고 추정해본다. 그럼에도 앞서 본 「三家淨選序」와 「仲春(…) 二十韻」 등은 김려의 古文觀 또는 진해 현지에서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3) 김려 서사 작품의 유전 양상

김려의 『丹良稗史』에 대해서는 목활자본 『담정유고』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단량패사』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10권 7책본 『담옹유고』의 『단량패사』[15]를 목활자본 『담정유고』에 실린 『단량패사』와 대조해보고, 목활자본이 간행되기 이전에 轉寫되었던 규장각 소장 『香半館藏書』와 일본 천리대 소장 『續齊諧志』에 실린 김려의 전 작품과도 비교하여 이본 간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려의 손자 김겸수가 『담정유고』를 목활자로 편찬·간행할 때에 육촌 김기수가 뒤늦게야 그 상황을 알고 보유에 넣을 작품들을 추가해주었는데, 그 『보유집』에는 「書龔雲林壽世保元卷後」도 들어있다. 그런데 『담옹유고』의 『단량패사』에서는 이 글이 「安黃中傳」의 바로 뒤에 수록되어 있고 다만 꺾쇠, 즉 삭제를 의미하는 교정부호가 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승려 선탄의 행적을 적은 글인데, 목활자본 『담정유고』의 『사유악부』 제238수의 주석에서 "선탄의 일은 『창가루외사』에 보인다(善坦事見倉可庫外史)"라고

15) 또 다른 원본에 제일 근접한 자료인 『담정총서』 내의 『단량패사』는 해당 책이 일실되었기에 현재로서는 『담옹유고』본이 가장 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담정총서』는 34권 17책 중 제5책이 일실되었는데 바로 그 안에 『동도서말집』, 『단량패사』, 『묵토향초본』이 수록되어 있었다.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여기에 언급한 『창가루외사』는 현재 통용되는 야사 총서 『창가루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김려는 적어도 유배 이전에 자신이 지은 전 또는 인물 서사 작품을 『창가루외사』라고 명명했음이 분명하다. 1792년에 김조순과 함께 청나라 張潮가 편찬한 『虞初新志』를 탐독하다가 자신들도 유사한 성향의 작품들을 지어 『虞初續志』로 엮었다. 50여 편을 2권으로 엮었는데 한 권은 강이천이 빌려가 잃어버렸고 또 한 권은 姜祥國이 빌려가서 그 중 절반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1797년부터 1806년까지 북으로 부령, 남으로 진해에 유배되었던 사이에 태반을 잃어버렸고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들도 김선민이 빌려갔다가 일실하였다. 이후 김려 본인의 작품을 겨우 수습하고 김조순의 작품도 수집하여 『단량패사』와 『古香屋小史』로 엮었다고 하였다.[16] 따라서 승려 선탄의 일을 수록한 『창가루외사』는 『단량패사』와 동일한 것이든가 아니면 일부 작품의 출입이 있는 본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속제해지』는 유몽인부터 박지원, 김려, 김선신, 오현상 등의 작가 12명의 서사 작품 35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김려의 작품으로는 『단량패사』에 수록된 작품 중 「포수이사룡전」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포수이사룡전」은 아마도 이사룡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 데다가 그를 입전한 다른 사람의 작품도 많아서 이 책의 편자가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책의 편자가 「승선탄전」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속제해지』의 편자가 김려의 필사본 『담정총서』를 보았거나, 아니면 김선이 편찬한 『담옹유고』를 보고 그 안의 『단량패사』에서 轉寫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목활자본 『담정유고』가 간행되기 이전의 사본을 본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의 편자는 제일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薇山 吳顯相으로 추정된다.

16) 金鑢, 『薝庭遺藁』, 「題丹良稗史卷後」.



[그림 7] 규장각 소장 『香半館藏書』(청구기호: 古3431-6) 및 『薄翁遺藁』 「書龔雲林壽世保元卷後」

다음으로 『향반관장서』[17]에 수록된 김려의 전을 살펴본다. 규장각에 소장된 이 책은 『단량패사』의 일부만을 초록하였는데 그 작품은 「賈秀才傳」과 「索囊子傳」이다. 이 두 작품은 김려의 현존 작품 중에 가장 수작으로 평가되기에 『향반관장서』 편자의 안목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 「賈秀才傳」을 중심으로 이 3종의 차이를 논해보겠다. 작품의 전사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필사 작품 중 불경의 문체를 흉내내는 대목에 있어 목활자본 『담정유고』에선 '欽聽慈旨'라고 하였으나 『담옹유고』, 『속제해지』, 『향반관장서』는 모두 '欽聽慈音'이라 하였는 바 이는 필사본이 더 문리가 타당하고 목활자본은 글자의 비슷함에서 비롯된 誤植이라 하겠다. 『속제해지』는 『단량패사』를 필사하면서 「이안민전」에 있어서만 두 글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옹유고』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충실한 전사라고 할 만하다. 『향반관장서』만 유독 6곳에 글자의 출입이 확인된다. 일단 이른바 『보리경』의 인용은 『능엄경』의 문체를 희학적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17) 李書九(1754-1825), 李鈺(1760-1812), 權常愼(1759-1825), 金鑢(1766-1821), 金善臣(1775-1846 이후)의 작품을 수록한 책으로 1책 38장의 필사본이다. 제일 앞에는 「某烈婦傳」 등 이서구의 작품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네 작가는 전부 김려의 벗들로서 김려의 『담정총서』에 다 수록된 작품들이다. 따라서 본서의 필사자는 『담정총서』를 열람하고 그곳에서 뽑은 것임이 분명하다. 이옥은 「張福先傳」, 「峽孝婦傳」 등 7편이, 권상신은 「在道院將遊水落山記」, 「女琬壙誌>, 김려는 「賈秀才傳」, 「索囊子傳」, 김선신은 「擬矯志詩」와 「淸陽」이 수록되어 있다. 본 필사본의 이면에는 추사 김정희의 척독이 필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완당척독』이 간행된 1867년을 전후한 시점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如是我聞. 一時佛在西洋海中. 爾時如來向大衆中. 啖婆娑國獻大鰒魚. 佛於頂上, 放千萬丈, 無畏光明. (…)"이라 시작한다. 그런데 『향반관장서』에는 '佛於頂上'의 '佛' 글자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필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이다. 이 글자는 行文의 리듬 상 생략될 수 없다. 작품의 말미에서 김려는 駒城 鄭叔에게 賈秀才의 이야기를 듣고 큰 흥미를 느껴 직접 赤城縣(조선시대 순창군의 古號) 淸源寺로 그를 찾아갔으나 떠난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구절에 『담옹유고』본, 『속제해지』본, 『담정유고』본은 공히 "去已三日矣"라 되어 있으나 『향반관장서』본만 "去已三日云矣"로 되어 있다. 『향반관장서』가 더 순리롭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년기와 유배기에 지어진 김려의 전들은 안타깝게도 화를 입어 대부분 소실되었고 겨우 9편(「승선탄전」 포함)이 남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1882년 간행된 목활자본 『담정유고』의 『단량패사』를 저본으로 진행되어 왔던 바 이보다 훨씬 앞서는 『담옹유고』, 『속제해지』, 『향반관장서』 수록 김려의 전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담정총서』의 『단량패사』가 일실된 현재의 상태에서 『담옹유고』본이 가장 선본이라는 점과 이들 필사본의 수록작들과 목활자본 수록작이 글자 출입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려라는 빼어난 작가의 글이 당대에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문헌 유통을 통해서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3. 김선 시문의 집일과 『楚館漫筆』

김선의 遺文은 산견되고 있어서 다 모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故 이겸로 씨 소장본 목록인 『한국전적종합목록』 제1집(산기문고, 1974)에 저록된 楚館曩人 편 『幽窩動忍錄』(표제: 楚館漫筆)이란 책을 열람한 바 있다. 목록상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幽窩動忍錄』 楚館曩人(純祖朝人) 著. 寫本.
1책(60장).
표제 : 楚館漫筆,
文中 : "辛酉(1801)三月二十二日戊戌余在典獄北間時"

지질 : 楮紙
내용 : 김건순 강이천 등 천주교도 邪學罪人으로서 所監 受忍錄임.



[그림 8]『幽窟動忍錄』수록「獄中作 七首」



[그림 9]『幽窟動忍錄』(표제: 楚館漫筆, 개인소장본)

목록에 기재된 위의 내용만으로 평안도 楚山에 유배된 김려의 아우 김선의 자료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수소문 끝에 개인이 소장한 이 책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책은 34권본『담정총서』와 같이 김려의 후손으로부터 일괄 자료로 들어온 김려 수택본이 틀림없다. 첫 면에 김려의 또 다른 호인 '海皐'가 장서인으로 찍혀 있다. 김선이 자신의 친필본을 형에게 준 것이거나 아니면 김려가 김선의 원본을 보고 한 부 轉寫해둔 것으로 추정된다.[18]『초관만필』에는 1801년 김선이 '강이천 비어옥'의

18)『산기문고목록』엔 이 자료 외에 김려의 담정유고 원고본도 여러 종 포함되어 있다. 薄翁

再審에 연루되어 취조당한 일을 일기식으로 기록하였고, 틈틈이 자신의 소회를 읊은 시가 삽입되어 있다. 『楚舘漫筆: 幽坮動忍錄』의 서문을 먼저 소개해본다.

> 傳에 말하기를, "군자는 법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라고 하였다. 이 몸(罪臣)이 죄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몸이 감옥에 갇혔고 이름이 역적의 供招에 올랐으나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여 다시 해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성은이 망극함이요, 따뜻하게 불어주고 덮어주어 용서해줌 아닌 것이 없다. 숨 죽여 감격하여 눈물 콧물이 섞여 흐를 뿐이다. 만약 환란의 가운데 처해도 그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병환 중에도 목숨을 잘 보존한다면 황량하고 추운 곳이나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너를 옥처럼 만들어줄 땅이 아닌 줄 알겠는가. 臣은 삼가 마땅히 선대왕의 '문 걸어 닫고 책을 읽으면서 허물을 뉘우치라'는 가르침을 띠에 쓰고 가슴에 새겨 늘 외우며 책려하여 성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할 뿐이다. 흐느끼고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기에 체포된 이후의 전말을 서술하였다. 문장은 심사숙고를 거치지 않고, 구절은 공교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으니 다만 간난고초의 실상만을 풀어놓았다.[19]

수록 작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獄中作 七首」이다. 이 작품의 제목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20] 34권본 『담정총서』내 「서원시준」(하)에도 이 작품이 실려 있는데, 거기엔 6수밖에 실리지 않았고 주석도 전혀 없다. 반면 『초관만필』에는 제7수가 한 수 더 있는데다가 매 작품마다 해설이 덧붙어 있고, 주석도 매우 상세하다. 「서원시준」에 없는 제7수만 소개하기로 한다.

> 술의 덕을 뭐라 형언할 수 없는데 즐거움 극에 달하면 슬퍼지지
> 고래로 지극한 아름다움은 화가 따르기 마련
> 맛난 술을 싫어함은 숭백 아들의 흠잡을 데 없는 행위요

遺藁 (필사본 10권7책). 遯玄觀詩草, 艮城春囈集, 擬唐別藁, 萬蟬窩賸稿 수록.

19) "傳曰: '君子懷刑, 小人懷惠.' 無論罪臣之有罪與無罪, 身幽楚獄, 名登賊招, 而幸保軀命, 復見天日者, 莫非聖恩罔極, 嫗覆成貸也. 屛營感激, 涕泗交頤而已. 若能素患難而存疚疾, 則荒寒沙漠, 安知非玉汝之地也. 臣謹當以先大王閉門讀書, 追悔曾尤之敎, 書紳服膺, 莊誦策勵, 以報聖恩萬分之一爾. 益不勝烏號痛泣之至, 玆述被逮以後顚末, 文不經思, 句不求工, 只以攄辛苦艱楚之狀云."

20) 金鑄, 『楚館漫筆』, 「獄中作」의 제목 아래 小註, "예로부터 시의 가리키는 바를 잘못 이해할까 늘 근심하였고 나는 보잘 것 없는 나의 뜻을 분명하게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이 때문에 스스로 주석을 달아 풀이하였으니 바라건대 보는 이들은 은미하게 읊조리고 잠깐 풀어도 요연히 눈앞에 펼쳐진 듯할 것이다(從古詩指每患錯解, 余恐牾志黑昧難明, 故自註以釋之, 庶幾覽者微吟暫繹, 瞭然若列眉云耳)."

성인(淸酒)을 좋아하는 서생은 다시 성인에게 걸려들었지
합차는 미치면 그만일 뿐인데 말이 많았고
유령은 송까지 지었으니 어찌 曠達에 합당하리오
분명히 알겠노니 이미 취한 것이 취하지 않음과 같음을
네가 말할 때 신중하며 위의를 검속하라[21]
酒德無名樂極悲,[22] 古來至美禍相隨.[23]
惡旨崇伯無間矣,[24] 樂聖徐生復中之.[25]
蓋次辭多狂乃爾,[26] 劉伶爲頌達奚宜.[27]
懸知旣醉猶無醉,[28] 愼女由言攝女儀.[29]

위의 원시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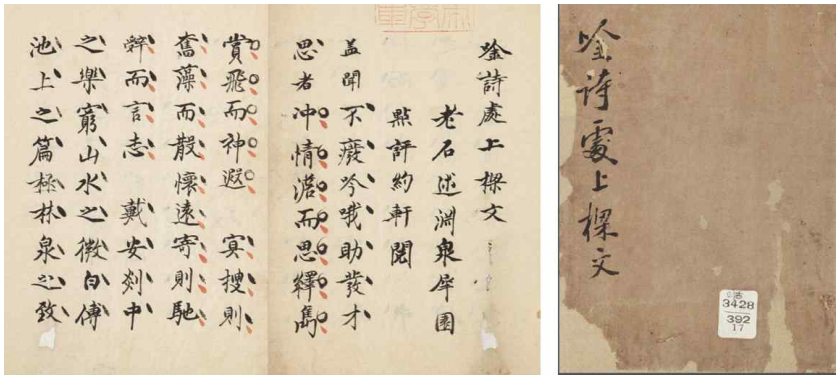
삼가 생각건대 내가 평소에 누차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대체로 술을 마신 뒤의 못난 행동 때문이었다. 바야흐로 그 수작할 때 절제가 없었고 잔과 안주가 낭자할 적에 오연히 스스로 천지 사이에 이 즐거움이 다시 없다고 여겼으므로 매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선 생각이 있어 마침내 교만하고 인색한 길이 열리고 공손하고 겸양하는 뜰이 황폐해지게 하였으니, 한 번 바치고 백 번 절하였다. 선왕께서 술의 화를 근심하심이 진실로 멀지 아니하였다. 묵묵히 허물과 재앙을 세어보니 이에 부끄러워 탄식이 늘어나 만약 말로 말미암아 바꾸지 아니하고 그 위의를 다스릴 수 있다면 취한 뒤에 어찌 상심하겠으며 취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겠는가.[30]

다음으로 규장각 소장 『洪顯周詩文稿』 제17책에는 김선이 老石 李復鉉(1767-1853)이 지은 글에 대하여 淵泉 洪奭周와 함께 評點을 가한 글이 있다.

---

21) 金鑮, 『楚館漫筆』, 「獄中作」.
22) '酒德' 原註: 劉伶作「酒德頌」, '無名' 原註: 『論語』其可謂至德也已, 民無能名焉.
23) 原註: 『禮』先王所以備酒禍.
24) '惡旨崇伯' 原註: 張子(필자주: 張載의 「西銘」)惡旨酒崇伯子之顧養也, '無間矣' 原註: 孔子曰, 吾於禹無間然矣.
25) 原註: 徐邈以淸酒爲聖, 濁酒爲賢. 又云時復中之矣.
26) 原註: 蓋寬饒曰, 無酌我, 我酒狂耳.
27) 原註: 竹林七賢, 時稱曠達.
28) '旣醉' 原註: 『詩』旣醉以酒, '無醉' 原註: 『詩』德將無醉.
29) '愼女由言' 原註: 『詩』無易由言, '攝女儀' 原註: 詩攝以威儀.
30) 金鑮, 『楚館漫筆』, 「獄中作」, "竊念余平日累憎於人者, 多由酒後之愆儀也. 方其獻酬無節, 杯盤交錯, 傲然自以爲天壤之間斯樂無雙, 每有遺世獨立之想, 遂使驕吝之路開, 孫讓之庭蕪矣, 一獻百拜. 先王之慮酒禍也, 亮不遠哉. 默數訾殃, 恧焉增歎, 若能無易由言, 攝爾威儀, 則何傷乎旣醉, 何虞乎無醉哉."

책의 내제는 「吟詩處上樑文」으로 吟詩處는 홍현주의 堂號이며 이 평점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10] 규장각 소장 『洪顯周詩文稿』(청구기호:古3428-392-v.1-25) 제17책

마지막으로 金善民 저 『觀燕錄』의 끝에 김선의 題後가 남아있다. 김선은 1806년 김려가 해배될 때에 같이 풀려나서 1809년에 진사가 되었는데, 이 글은 그 사이인 1807년에 지어졌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장은 이무기처럼 정해진 형세가 없고 시는 鐵撥처럼 새로운 소리를 변주한다. 그것을 보면 아리땁고 구불구불하며 빙빙 돌고 어렴풋하며 깨끗하고 빼어나 푸른 虬龍이 여의주를 희롱하고 玉獅子가 공을 던지는 것 같다. 그것을 들으면 훵한 골짝과 공활한 하늘에 옥소리가 진동하고 빠르게 움직여 짙은 안개에 북이 섞여 있고 자욱한 연기에 비파가 엉겨 있는 듯하다. 푸르면서도 黃白色과 騅黃色을 띠는 것은 色相이 미칠 바가 아님을 비로소 알았으니, 六銖衣와 七裹을 어찌 저울로 달고 자로 잴 수 있겠는가?
>
> 그러나 魯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것을 취했겠는가? 靈山法會에서는 비록 比丘尼와 優婆夷라 할지라도 三乘을 말하지 않는 이가 없다. 黨太尉의 家妓가 오히려 금박을 입힌 휘장을 기억한 것과 같은데, 부귀의 相을 작은 마을의 미인이 어찌 얻을 수 있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하늘이 慧解를 정하지 않고 靈識을 주지 않았다면, 또한 어찌 능히 東序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地縣에 대해 듣고도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정묘년(1807) 中春에 犀園이 쓰다.[31]

31) 金鑄, 『觀燕錄』에 쓴 題後. "文似蟠龍無定勢, 詩如鐵撥變新聲. 眡之, 妖嬈詰屈, 廻闇瀞秀, 蒼虬戲珠, 玉獅

이외에도 제2장에서 언급한 연세대 소장본『담정총서』에 서원 김선이 작고한 부친 김재칠에게 올리는 고유문이 있다. 이는 주석으로 그 전문을 밝혀둔다.[32]

4. 결론

담정 김려와 서원 김선 형제의 문헌 가운데『담정총서』와 목활자본『담정유고』 외에 현전 저작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김려의 자료로 연세대 소장『옥담서종』과『담정총서』가 있는데, 전자에서는 '옥담서종', '담자외서' 같은 스스로의 명명이 주목된다. 후자에서는 시문이 뒤섞여 있는데 특히 옥수 조면호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소장 필사본『담정시집』,『사유악부』,『감담일기』,『담정유고』를 살펴보았다.『담정시집』은 즉『의당별고』이고,『사유악부』는『담정총서』본과 수록 편수가 300편으로 동일하다.『감담일기』는 종이 이면에『귀현관시초』를 적어놓은 데다가『담정총서』와 내용상의 차이도 일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담정유고』는 앞서 언급한 3종과 달리 김려의 수택본이 아니고 김려의 후손이 편집했으며, 다른 사람의 글도 한 편 들어있다. 여기에는 1801년부터 1806년까지 김려가 진해에 유배되었을 때 교유한 안동권씨가와 관계있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김려의 진해 유배 생활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김려의『단량패사』의 유전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 이용되었

抛毬. 聽之, 谿舒空廓, 琳瓊振迅, 涿霧混鼓, 深煙凝瑟. 始知靑騾騅黃非色相之所及, 六銖七襄, 豈衡尺之可度. 然魯無君子者, 斯焉取斯. 靈山法會, 雖比丘優婆无有不能說三乘者矣. 如黨太尉家妓猶記銷金帳, 富貴相, 三家村姝, 安得爾爾. 雖然, 抑非天定慧解, 天生靈識, 亦安能瞻東序而不駭, 聆地縣而不走哉. 丁卯(1807)中春犀園書."

32)「告先府君墓文 犀園」. 維歲次辛酉二月丁未朔三十日丙子, 惟我先考通訓大夫龍潭縣令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府君, 先妣淑人完山李氏遷祔于負丑之原, 禮也. 不肖孤鏞, 敬以醍尊腥俎, 踊哭以告之曰, 烏虖悲矣! 念我父母, 愴懷以悲. 悲来填膺, 歷亂其辭. 栗彼佳城, 參卜靡從. 哀我父母, 闕始于終. 旣襄旣祔, 爰諏靈辰. 於昭不顯, 陟降孔隣. 睿哉我考, 孝矣我慈. 厭穢昇玄, 棄兒若遺. 哀我父母, 生我劬勞. 痛瘝小子, 貽父母勞. 鞠我育我, 恩我勤我. 糾曐提耳, 實欲可我. 出言遑期, 旋庭以候. 疾焉傷神, 撫我以首. 飯我飮我, 臨酒思我. 頷珠玄壤, 曾不知飢. 宵焉煖我, 念衣複單. 委體山阿, 曾不念寒. 體醆嘉魂, 曾是莫馨. 祝嘏交奏, 曾是莫聽. 畫筵絳綴, 曾是莫臨. 靑黃錯陳, 曾是莫吟. 縞冠素武, 祥服旣朔. 念兒不肖, 儀百難贖. 粤丁兒病, 兒髮如篦. 毋循髮言, 女歸曷世. 兒髮髣髴, 母墓樹拱. 痛兒何曾, 宛其忽寵. 纍彼伯纍, 曾氷峨峨. 蝮蛇蓁蓁, 積石谿舒. 蝮蛇撐結, 厲吻敦脢. 道之云遐, 曷云能来. 疇昔虞夢, 言笑溫溫. 覺言非是, 嗥號靡聞. 凊不及枕, 溫不及被. 怛焉忸怩, 心虖如燬. 人亦有言, 合順歸寧. 曷詢其期, 敬從玄扃. 烏虖尙饗.

던 목활자본 『단량패사』에 선행하는 『담옹유고』, 『속제해지』, 『향반관장서』를 주목하였다. 특히 『담옹유고』는 현존하는 『단량패사』의 最先本이라는 점, 『속제해지』와 『향반관장서』의 김려의 전들은 글자 출입의 對校는 물론 김려 작품의 당대 유전 양상과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김선 관련 문헌은 개인소장의 『초관만필』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기타 「告先府君墓文 犀園」, 『관연록』 題後, 「음시처상량문」에 대한 평점 등을 찾았다. 김선 시문의 집일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김려·김선 형제와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의 정도, 영향관계가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 磁場 안에 李鈺, 金善臣, 金照, 趙冕鎬, 金綺秀 등 중요한 문인들이 포진해있는데, 이들 관계망의 조명은 19세기 문학사의 새 판을 짤 중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 려 편, 『담정총서』, 필사본 34권 17책, 국립한국문학관(학자원 영인, 2014.)
김 려 저, 『담옹유고』, 필사본 10권 7책, 국립한국문학관.
_____, 『담정유고』, 한국문집총간 289, 민족문화추진회, 2002.
_____, 『감담일기』, 필사본 1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D03B-4362 v.1)
_____, 『사유악부』, 필사본 1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D03B-4363 v.1)
_____, 『담정시집』, 필사본 1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D03B-4364 v.1)
_____, 『담정유고』, 필사본 1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D03B-4365 v.1)
_____, 『우해이어보(표제 옥담서종)』, 필사본 1책, 연세대 소장(고서(서여) 173 0)
_____, 『우해이어보(표제 담정총서)』, 필사본 1책, 연세대 소장(고서(귀) 639 김려 우)
김선민, 『관연록』,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김선신, 『목여선생행장』, 영남대 도서관 소장.
김조순, 『풍고집』, 한국문집총간 289, 민족문화추진회, 2002.
미 상, 『속제해지』, 필사본 1책(『조선학보』 제92집 영인), 일본 천리대 소장.
미 상, 『향반관장서』, 필사본 1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복현, 『석견루 / 석견루시초』, 고려대 신암문고 소장.
조면호, 『옥수집』, 한국문집총간 속125, 한국고전번역원, 2011.

강혜선, 「『閨人觀尺牘』과 『楓皐觀小牘』을 통해 본 金鑮와 金祖淳의 교유 양상」, 『韓國漢文學硏究』 69, 한국한문학회, 2018, 37-72면.
_____, 「金鑮의 유배기 한시 연구」, 『韓國漢詩硏究』 27, 한국한시학회, 2019, 67-103면.
_____, 「金鑮의 〈舟行百首〉 연구」, 『韓國漢詩硏究』 28, 한국한시학회, 2020, 187-217면.
김우정, 「『牛海異魚譜』의 성격에 관한 再論」, 『해양문화재』 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1, 29-50면.
김영진, 「아우가 쓴 형의 행장—목여선생행장」, 『문헌과해석』 2008년 발표문.
_____, 「金照의 燕行錄 『觀海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155-179면.
_____, 「金鑮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大東漢文學』47, 대동한문학회, 2016, 41-78면.
_____, 「조선후기 명청소품의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옥수 조면호의 시 세계』, 돌베개, 2008.
김하라, 「西漁遺稿 와 그 주변」, 『규장각』 4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85-119면.
_____, 「潭庭叢書 에 수록된 權常愼 산문의 특징과 그 의미」, 『2016 춘계기획학술대회 논문집』, 대동한문학회, 2016.
노성미, 「담정 김려의 진해현 유배기 문학 현장 연구」, 『가라문화』 30,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2021, 3-33면.
박준원, 「坎窞日記 연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431-459면.
박혜숙, 「담정 김려—새로운 감수성과 평등의식」, 『한국문화』 1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_____, 『부령을 그리며』, 돌베개, 1996(개정판 1998).

백승종,『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송경애,「张潮与清代的编辑出版文化」,『국제언어문학』23, 국제언어문학회, 2011, 163-180면.
신로사,「김선신의 생애와 저작에 관한 일고」,『동방한문학』36, 동방한문학회, 2008, 129-155면.
안대회,「金鑢의 야사정리와『寒皐觀外史』의 가치」,『寒皐觀外史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정병호,「김려 문학 연구의 성과와 김려 '傳' 연구의 반성적 검토」,『대동한문학회 춘계기획학술대회 논문집』, 대동한문학회, 2016.
정우봉,「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坎窞日記 의 특징과 의의」,『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417-447면.
조창록,「김려의『우해이어보』와『자산어보』·「전어지」의 비교 연구」,『大東漢文學』47, 대동한문학회, 2016, 171-202면.
홍진옥,「담정 김려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Abstract】

Philological review of Kim-Ryeo and Kim-Seon brother's Work

Kim, Young-Jin*

This paper reviewed the existing manuscripts of the Kim-Ryeo and Kim-Seon brother who left a clear mark i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troduced new materials of them. Between 1818 and 1821, Kim-Ryeo compiled of 『*Damjeongchongseo*』 by collecting himself and his acquaintances and relatives' poetry and literature. Kim Gyeom-soo, Kim-Ryeo's grandson, selected only Kim Ryeo's poetry in this book and published wooden movable type 『*Damjeongyugo*』 in 1882 with the cooperation of second cousin Kim Ki-su. The complete works of 『*Damjeongchongseo*』 is the only manuscript, but the transcripts of 『*Woohaeiobo*』 and Kim Ryeo's biographies exist. A "valuable copy" of 『*Woohaeiobo*』 owned by Yonsei University include poems written by Kim-Seon, Kim Sun-shin, and Cho Myeon-ho. Considering Cho Myeon-ho was Kim-Seon's student, I think Cho Myeon-ho or the people around him would have written this book. Kim-Ryeo's works are also included in 『*Sokjehaeji*』and『*Hyangbangwanjangseo*』. Sungkyunkwan University's 『*Damjeongyugo*』 contains 8 piece of works such as 「*Wolamkwongonghaengrok*」, 「*Mosunjaesangrangmoon*」, 「*Mosunjaegi*」 written in a place of exile Jinhae. Only 「*Mosunjaesangrangmoon*」 *and* 「*Mosunjaegi*」 are shown in the wooden movable type 『*Damjeongyugo*』. Also Kim-Seon's inscription in Kim Sun-min's 『*Gwanyeonrok*』 and 『*Chogwanmanpil*』 written in the exile site Chosan were excava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Ryeo and Kim-Seon brother and Chusa Kim Jeong-hee.

Keywords: DamJeung Kim-Rye (1766-1821), *A Series of DamJeung*, Kim-Rye's manuscripts, SeoWon Kim-Seon, Chogwanmanpil, exile literature.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5.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